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받자”

4부 중보기도: 청년부팀 (2:00pm~3:30pm)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 1)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옵시고 본당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3) 주일 강단으로부터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침체 되어 있던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꾀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4)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배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큰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본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 5) 모든 중보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앞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 2 & 3부: 김대규목사)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 73:26]

- 1)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 2) 성령충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 3) 마음의 근심과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참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케니박목사, 김대규목사, 김상대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김진승장로, 모리순장로, 정태인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회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성령께서 도우사, 하늘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말씀선포 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부 예배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행 2:37-41)	김향신 목사님
2 부 예배	저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못하였음이니라 (수 3:1-8)	안영식 목사님
3 부 예배	기적을 경험하자(요 11:20-27)	송종호 목사님

1.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들의 심령을 물댄 동산같이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2.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케 되며 묵은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항상 맺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3.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영이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로서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아 그 부르심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담임목사님의 한국 사역에 기름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이 시대를 읽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지도력을 주셔서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5.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은혜교회와 은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 3)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4) 악한 사탄 마귀가 한 순간도 예배시간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온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세력을 떨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1)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두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 3)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으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 4) 사람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 5)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옵소서.
- 6) 위로, 치유, 소망, 용기, 자유를 경험하는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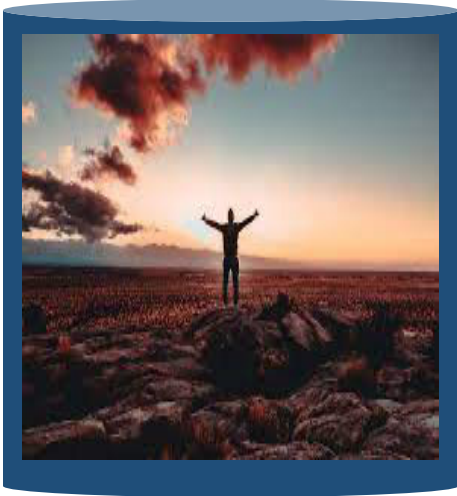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대상16:29]

- 1)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많은 복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 2)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 3)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거룩함(레 11:45)과 존귀함(잠22:1)과 정직함(잠12:22)이 생활화 되게 하옵소서.
2.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큐티, 말씀통독,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 변화받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3. 교회에 기도하는 지체들을 많이 세워주옵시고 일천번제를 통해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 1)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과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 2)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게 하옵시며 모든 면에서 먼저 학생들 앞에 본을 보이는 예수님 닮은 교사들되게 하옵소서.
- 3) 교사들이 먼저 자신을 영적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게 하옵소서.
- 4)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 5) 청소년기 때부터 은혜받아 평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 6) 영적 지도력을 구비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 7) 청년들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은혜로 이 시대를 섬기면서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감동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를 위한 기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2:24]

- 1) 환우와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 2)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 3)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 4)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질병, 특별히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명을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사모님의 허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 2)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3)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질병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 2)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와 현지 사역들이 다시 재개 되게 하셔서 예정된 자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 3)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가는 선교나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한인승 선교사님(브라질)

12 월 청년 AFA 잘 진행되도록/ 영육간에 강건

김돈수 선교사님(파라과이)

양로원허가가 나오도록/ 선교사가족의 건강/
파라과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나아지도록

김재한 선교사님(파나마)

선교사의 건강/ 교회 건축 재정과 완공을
위해/제자들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도록

미얀마 선교사 교회를 위해

평화를 위해/환난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도록/교회
건축을 위해/ 현지 동역자들을 코로나와
군사정권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오늘도 전 세계에는
믿음 때문에 핍박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 **강지애 선교사님(아르헨티나)**-유방암 판정/ 한국에서 예정
- **이지향 선교사님(I 국)**- 척추협착증이 완쾌되도록
- **박성직 선교사님(C 국)**-심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하시도록
- **이예신 선교사님(네팔)**- 5 종류의 암에서 완쾌되도록
- **김봉년 선교사님(첼라빈스크)**- 암세포가 제거 되도록
- **양창모 선교사님(터키)**- 파킨슨병
- **이혜영 선교사님(터키)**- 검사 결과 암의 사이즈는 줄었으나
척추 끝 부분에 통증이 심합니다.
- **김지경 선교사님(사할린)**-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최정진 선교사님(얼타이)**- 걸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김명자 선교사님(스웨덴)**- 췌장암 항암치료를 잘 되도록
- **김재한 선교사님(파나마)**- 수술 후 완쾌를 위해서

- 미국이 하나님께 주신 태아 생명을 보호하게 하소서. 텍사스주가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지난 9월 24일 연방하원이 여성의 낙태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통과는 불투명함) 연방대법원이 이번 10월부터 열리는 회기에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시킨 ‘미시시피주 낙태법’을 다루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판결을 하도록 비사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이어 미국의 성경적 가치관들을 보호하소서. 연방하원과 CA를 비롯한 몇 개의 주의회가 계속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공홀히 여기시고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 성경적 가치관들이 보호되게 하옵소서. (연방하원: 평등법, 마리아나 판매합법화, 여성 낙태권리 법안 등 CA 주의회: 공립학교에서 비판적인종이론 필수교육, 성전환 유도교육, 동성애, 변태성애 교육 등)
- 대통령, 주지사들, 연방의원들, 연방대법관 등 이 나라의 주요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내년 중간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지도자들로 뽑히게 하옵소서.
- 10월은 목회자 감사의 달입니다. 섬기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체력과 힘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소서. 생각과 행동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목회자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 미국,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 70% “예수만이 유일한 길 아냐”: 기독교 세계관 정립 사역을 하는 ‘프로브 미니스트리’는 미국인들 3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스스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들 중 약 70%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설문조사 결과,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원주의의 수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들과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한 것이다.
- 미국 교회의 교인수가 지난 5년 동안 감소했으며, 특히 미국 중위그룹(중양값) 교회의 출석인원이 65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릴리전뉴스서비스(RNS)가 최근 보도했다: FACT(Faith Communities Today)가 미국 전역에 위치한 1만 5278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균값은 조사 대상 전체를 일률적으로 나눠 평균을 구한 값인 반면, 중양값은 대상교회의 출석교인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정중앙에 위치한 교회의 출석교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교회의 형편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다.
- 선교사 납치 아이티 갇단... “요구사항 안들어 주면 인질 살해 하겠다”: 아이티에서 미국 선교단 17명을 납치한 갇단 ‘400 마우조(Mawozo)’가 21일(현지시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AP 통신에 따르면, ‘400 마우조’의 두목 월송 조제프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에서 아이티 크레올어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미국인들의 머리에 총알을 박을 것이라고 맹세한다”고 밝혔다.앞서 ‘400 마우조’는 선교단 몸값으로 1인당 100만 달러씩 총 17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요구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가능한 모든 핵 활동 진행 중이며 핵시설 확장”
- 중국,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서...촉구장 10개 규모

서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시는 덕분에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는데 많은 절차들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잘 도착해서 예수 마을 교회 창립 41주년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마을교회(담임 장학일 목사) 부흥회는 원래 40주년 부흥회에 강사로 작년에 계획되었는데 펜데믹으로 연기되었고 이번에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집회 때마다 참으로 방해가 많았습니다. 새 성전 입당 기념 부흥회를 계획했는데 완공이 늦어져서 건축 중에 구 성전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 몸살, 배탈로 설교 전에 침을 맞아가며 힘들게 집회를 인도한 경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지역이 과거 점집들, 무당들이 많은 지역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힘든 곳인데 장학일목사님이 이곳에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역에서 겪으면서도 기적적으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성전 벽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보면 예수님이시다 알 수 있는 큰 사이즈로 그려져 있기에 얼마나 마귀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주의 종이 사역하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2세 재능 일군 양성을 위해 최선을 기도하며 온 교회가 헌신해서 세워진 학교에 이단의 침투로 극도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 모든 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이 목사님의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영적으로 여호와 닮은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 창립 41주년과 장학일 목사님 성역 4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집회입니다. 이번 집회 주제는 다시 세우기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일까지 집회를 하고 월요일에는 C 채널 방송국에서 목회 대담을 하고 화요일에는 건강검진(내시경검사 등. 종합검진) 받고 수요일에는 동탄 시온교회(하근수목사님) 특별새벽집회, 저녁에는 하남 성안교회(장학봉목사님) 에서 특별집회를 인도 합니다. 목요일에는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하고 목회자 모임, PCR 테스트, 가족모임 을 갖고 금요일에 귀국해서 다민족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사역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해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이블타임 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강건하시며 은혜 충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목사 드림

성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42세가 되던 1977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새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막연하게나마 성실한 것에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무엇에 성실했단 말인가?” 인간은 자신에 대한 생각도 허구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이 성실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 때 비로소 제가 그 아무 것에도 성실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자신이 성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무엇인가 성실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충실 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으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교인 등록 신청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후에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에는 사사압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다가 사사가 되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압다가 다음과 같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삿 11:30-31)”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고, 개선하여 돌아올 때 압다의 무남 독녀인 딸이 아버지의 개선을 기뻐하며,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압다는 자신의 서원 때문에 무남독녀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비록 무남독녀인 딸이라도 번제로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보여주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실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신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사역을 내려놓으면 너무나 어리석은 성도가 되고 맙니다. 오래전 중국의 최남단인 해남을 방문했을 때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었습니다. 그곳의 사역하는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의 수양관을 짓기 위하여 설계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가정교회 목사와 같은 분인데 다음과 같은 간증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원래 목사였습니다. 문화혁명 때 붙들려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수시로 아버지가 끌려가서 수없이 때를 맞은 광경을 매일 보면서 자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에 못 이겨 예수를 버리고 세 성도만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살 곳이 없어 밭에 있는 남의 화장실 같은 곳에 살며 믿음을 지킨 성도가 남몰래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그는 어린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죄인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도 예수를 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사역도 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게 해주셨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은 문화혁명 때 붙들려서 철사 줄로 손발이 얼마나 조여져 뭉겼는지 철사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손목과 발목에 팔찌처럼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지역에는 과거에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받고 고통당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중에도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실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 동정

한기홍 담임목사님께서 10/25(월)~28(목), C 채널 목회대담, 동탄시온교회 특별새벽예배, 성안교회 특별집회 인도하십니다. 집회 및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2.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온, 오프라인) 10/29(금) 7:30pm~9:30pm

- 본 교회 본당에서 2021 년 기도대회를 갖습니다. 담임목사님은 대표대회장으로 섬기십니다.

기도대회를 준비하며:

- a. 대 부흥이 미국과 세계 각처에 임하도록
- b. 평등법(H.R.5)이 상원에서 부결되어 폐지되도록
- c. COVID-19 이 속히 종식되도록 성도 여러분은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Kimnet 선교컨퍼런스 11/1(월)~3(수) 7:30pm 본당

- 주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디아스포라 선교”

4. Grace Freedom 41기 개강

- 남자기 11/5(금)~7(주일) / 여자기 11/12(금)~14(주일)

5. 추수감사 특별부흥회 - 11/15(월)~20(토)

“청교도 신앙회복 영적대각성 부흥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며
은혜 받는 집회에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날(15): 한기홍목사님(은혜한인교회), 양춘길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 둘째 날(16): 김우준 목사님(토렌스 조은교회), 위성교목사(북가주 뉴라이프교회),
- 셋째 날(17): 호성기목사님(필라 안디옥교회), 허연행목사(뉴욕 프리미스교회),
- 넷째 날(18): 진유철목사님(나성순복음교회), 이성철목사(달라스 연합감리교회),
- 다섯째 날(19): 이은상목사님(달라스 세미한교회), 권준목사(시애틀 형제교회),
- 여섯째 날(20): 손정훈 목사님(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김춘근교수(JAMA),

